학령기 아동의 외/내현적 자기애와 자기통제 및 어머니 양육행동 간 관계

민 하 영(대구가톨릭대 부교수)

나르시즘으로 불리우는 자기애는 외/내현적 자기애로 구분된다. 외내현적 자기애는 '거대성(거대자기 환상 grandiose)'과 '자기 중요(self-importance)'라는 공통된 특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현적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들은 높은 자신감과 삶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나타낸 반면,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들은 낮은 자신감과 삶에 대한 낮은 만족감을 나타내는 등 서로 다른 심리적 특성을 나타낸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자기애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애적 특성을 외/내현적 자기애로 구분한 후 외/내현적 자기애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양육행동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한편 이 연구는 외현적 자기애가 내현적 자기애와 달리 건강한 또는 순기능적인 발달특성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학령기 아동의 외/내현적 자기애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 관계를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학령기 아동의 외/내현적 자기애와 자기통제 간 관계를 독립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은 남녀 아동으로 구분해 접근하였다. 자기애에 관한 인구학적 기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1) 학령기 남녀 아동의 외/내현적 자기애 차이는 유의한가? 2) 학령기 남녀 아동의 외/내현적 자기애와 자기통제 간 관계는 어떠한가? 3) 학령기 남녀 아동의 외/내현적 자기애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영향력은 어떠한가?.를 설정하였다. 연구대상 아동은 대구경북 지역의 5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남녀 아동 517명이며, 이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프로그램의 독립표본에 의한 t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중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결과는 유의수준 .05미만에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학령기 남녀 아동의 외현적 자기애는 내현적 자기애와 달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현적 자기애의 경우 남아에 비해 여아가 높게 나타났으나, 내현적 자기애의 경우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학령기 아동의 외현적 자기애는 자기통제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내현적 자기애는 자기통제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셋째, 학령기 아동의 외현적 자기애의 경우 남아는 적극적-수용적 양육행동과 적극적-제한적 양육행동에 의해 유의하게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아는 적극적-수용적 양육행동에 의해서만 유의하게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회귀분석 결과, 남아의 외현적 자기애나 남녀아의 내현적 자기애 모두 적극적-수용적 양육행동이 낮을 때보다 적극적-제한적 양육행동이 높을 때 즉 온정과 애정적 양육행동이 낮은 수준에서 일어날 때보다 비난과 체벌 위주의 양육행동이 높은 수준에서 일어날 때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학령기 아동의 외현적 자기애나 내현적 자기애를 교육, 지도, 관리하기 위해서는 온정과 수용의 적극적-수용적 양육행동을 강화하는 것 이상으로 비난과 체벌 위주의 적극적-제한적 양육행동을 억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